10과 바벨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아이들을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할수 있는 귀한 교사의 직분도 허락하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불의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 말씀의지하고 또한 주님 능력을 의지해서 이 교사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한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주 공과 제목이 바벨탑이죠 ,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길지 않으니깐요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2.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3.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주 공과가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주제이고, 또 잘아는 그런 내용이죠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이 있고, 그리고 4가지, 4명의 인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는 창조 , 그다음에 타락, 그리고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4명의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는 4가지의 사건과 4명의 인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시대상 분류로 볼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양심시대의 마지막 사건이다라는 거죠

바벨탑 직후에 11장 뒤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인간 역사를 인간의 양심에 맡겨 두었을때 그 끝은 혼잡이였다.

혼란이였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사건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거죠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1장은 서로 밀접한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노와의 3아들로부터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나뉘고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이나오고 있고

창세기 11장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전세계에 흩어졌는지 이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0장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잠깐 보시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 노아의 아들중에 3번째 아들인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기술하고있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둘째아들, 함의 후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 후손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들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름들이 고대 나라이름, 나라이름, 구스, 미스라임, 앗수르 오발 등처럼 고대 나라 이름과 동일하고

그다음 도시이름, 다시스 가사 니느웨 그다음에 고대 종족이름 블레셋 루딤 이런 이름들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실명이 거론되고 있고 그 이름들이 실제로 고대 역사에 나라이름 도시이름 종족이름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어보면 야벳의 후손의 이름들이 14명이 언급되고 있고 함 후손의 이름들은 30명이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셈 후손의 이름은 26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 더하면 70명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70이란 숫자는 만수, 꽉찬 숫자다라 그러는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
1.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2.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랬죠? 쭉 나오다가 5절입니다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

5.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예,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그러니까 각기 쓰는 말을 가지고 나누어 진거죠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래서 쭉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예 여기도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은 셈의 후손인데,

21.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래서 이름이 쭉 언급된 다음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예 이렇게 해서 족속과 방언, 쓰는 말들과 지방과 나라대로 다 나뉘어진 사건이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방언이 나누어진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은 10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장에요, 6절보겠습니다. 6절

6절보면 여기에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

6절에
6.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7.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8.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9.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군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군이로다 하더라

예,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대적자

그는 세상이 처음 영걸이라 그랬죠 처음 영걸이라 그랬는데

이 영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깃뽀르> 이란 말로 나오는데, 이 좋은 의미로는 용사, 영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쁜의미로는 폭군 악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세계 최초로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전제 군주였고 폭군이

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였다 그랬죠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할때 이 앞에서 라는 말이 여호와를 대적하다. 여호와를 대항하다 .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므롯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만을 제일로 믿는 폭군이나 압제자를 가리키는 속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A.D 1세기 경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하고 주도한 인물이였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니므롯을 보면, 니므롯이 노아의 증손자였어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 이였고, 함이 이제 구스, 구스를 낳았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죠 .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잖아요? 노아가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였습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이 구스였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로부터 바로 이제 3대후에 바벨탑을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그죠.

그런데 다시보면 21절에 셈의 후손이 언급되죠. 21절에 보면 22절에

22.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23.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24.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25.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그랬습니다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이였습니다, 아르박삿. 이름이 아르박삿이였어요

그다음에 누굽니까, 셀라죠.

셀라의 아들 이름이 에벨이고, 그 다음이 벨렉이죠.

에벨이 두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으르 벨렉이라 했으니, 그다음에 뭐예요, 이때

땅이 나뉘었음이요. 그죠

땅이 나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이때 언어가 흩어져가지고, 전세계에 흩어진거예요

그래서 이 3대때, 3대때 바벨탑을 지었고 그다음에 이 셀라와 니므롯은 같은 저기잖아요, 그 노아의 증손자 . 그래서 벨렉때 땅이 나뉘어졌으니까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3 대때 바벨탑을 지었고 5대만에 흩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3대만에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2.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3.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예, 됐습니다.

예, 시날평지로 이제 만나서 동방으로 이동하나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하고, 거기 거했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나오죠

아마도 시날 평지, 평지이기 때문에 돌이나 진흙이 없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까지 쌓는 탑을 쌓을때 돌과 진흙이 아니고 벽돌과 역청이였습니다

바벨탑의 재료가 뭐였냐면 모양과 크기가 균일한 벽돌이였고 금방 붙어버리는 끈적끈적한 역청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표현에 보면,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이말속에 대신하며 대신하고 라는 표현이 읽다보면 마음에 걸린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하며, 대신하고 이말이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원래는 , 원래는 벽돌과 역청이 아니고 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과, 진흙이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는 벽돌과 역청이아니고 돌과 진흙이였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아보면 이 돌이 의미하는게 뭡니까, 다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른 각각의 존재들, 산 돌이죠.

이 깎기고 부서져야만 쓰임받는 그러한 존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 진흙은 굳는데 시간이 걸리죠, 단단해 지는데. 시간을 통과해야 되요. 어떤시간입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겁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몸의 각지체인데, 구원받은 우리는 다 산돌인 거예요, 산돌, 살아있는 산돌 .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고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산돌인거죠

구원받았지만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이전의 죄성과 육신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산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산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려면 부딪치고 깎여나가야 되는거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 하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어지게 되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산돌같은 지체들이 서로 부딪치고 깎기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 교회가 완성되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재료는 벽돌과 역청이 아니고 돌과 진흙이였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절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죄의 유혹에 언제 든지 넘어갈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벽돌같은 그런 로봇을 원하는게 아니였어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받기 전에 죄성과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때 우리 죄성도 함께 다 가져가 버렸으면 간단한거잖아

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벽돌같은 그런 프로그래밍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것인지 아니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 살던지 이제 하는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산돌같은 우리는 깎여나가는 과정중에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중에 있는 것이 우리다 라는 겁니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는 벽돌과 역청이 아니였고 돌과 진흙이였다 라는 거죠

4절입니다.
11장 4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여기보면 바벨탑을 쌓게된 동기가 나와있는데 3가지 면에서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3가지?

자 첫 번째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그랬죠 ,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이 이제 지극한 교만인 거죠, 하늘에 닿게 하여 .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14장에 보면 마귀에 대한 내용이나오는데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이제 버림받은 것이 루시퍼 , 마귀였습니다

그런것처럼 성과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자 이것이 지극한 교만인 거죠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잖아요 ?

교만한 마음,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모습이 아니고 , 뭡니까?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피조물이 조물주,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볼때는 참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아는것이 우리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죠?

여기서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소원이 되는거죠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 로마서 14장 7절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거죠

6절 보세요 위에 .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그죠

주님을 위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또 잘못된 거였습니다

이 피조물을 당연히 조물주를 기억하고, 그 조물주의 영광을 위해사는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고, 모여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였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였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신것이 뭐였냐면 ,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그리고 노아홍수 직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였고 뜻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도 이것도 문제였고, 온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이것도 문제였죠

사도행전 17장을 볼까요? 17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그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온땅에. 그리고 저희의 년대를 정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거죠 . 그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 하나님은 이 지구외에는 인간의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온땅에 거하게 하셨다. 온땅에 편만한 것이 주님의 뜻이였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였다라는 겁니다.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전세계에 이제 다 편만하게 흩어진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합당하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여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냐 ,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말씀인거죠 . 말씀.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면 합당치 않는거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으면 이것이 합당한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사는것이 그것이 맞다라는 교훈을 또 받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입니다. 본문가겠습니다.
11장 5절, 11장5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그죠. 예

여기서 받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보시는 구나. 그죠

하나님은 다 보시는 구나.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 , 내가 짓는죄.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구나. 그런걸 우리가 이제 알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시편 또 94편에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죠

하나님은 다보고 듣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잘못된 어떤 인간의 뜻과 계획으로 지어진 바벨탑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 버리는 거죠

6절입니다. 11장 6절

6.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한 족속이였고, 한 족속이였고 언어가 하나였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족속, 한언어였기 때문에 하나로 뭉칠수 있었고 ,
그리고 지식의 사용(?)도 되게 용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조건에 있었는데 이런 좋은 조건을 하나님의영광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바벨 탑을 쌓는데 써버렸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인간들은 방금까지 자기가 썼던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또. 그죠 ?

순식간에 수천개의 언어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어긋나면 순식간에 수천개의 언어도 만드시고 또 필요할 땐 어떻습니까?
다시 언어도 합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데,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말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으시기도 하시고, 언어를 합하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바벨탑 공과인데요, 이제 학생들과 교제할 내용을 몇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 바벨탑 공과를 통해서 첫 번째 성경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다. 분명히 , 분명한 사실이다.

그 10장에 나와있는 그 자손들의 이름이 고대 민족과 나라와, 족속 이름과 동일하다 라는 거죠

성경은 사실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리고 3번째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으냐,합당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4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행사를 다 보고 계신다.

5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주와 은사를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외국어가 생겨났고 그리고 이것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교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에 바벨탑 공과를 통해 우리가 또 함께 알고 교훈받아야 될것을 또 교제하였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또한 익히고 연구해서 충분히 묵상한 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교제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있을 모든 계획과 행사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